

민, AI·반도체 융합 거점 vs 김, 풀사이클 반도체 생태계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쟁점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투표에서 맞붙은 민형배·김영록(기호순) 후보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 먹거리, 복지 등 눈앞에 놓인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경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구상을 짚어봤다.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육성
민형배·김영록 후보는 지역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있다. 반도체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민 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남부권의 '인공지능·반도체 융합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확충하고, 전남에는 반도체 후공정 및 소재·부품 산업을 집적화해 AI-반도체-모빌리티로 이어지는 신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김 후보는 지역을 세계 유일의 '풀사이클 반도체 생태계'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3각 축으로 연결,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상 중이다. 특히 광주권은 반도체 설계·엣지(Edge) AI·패키징을, 서부권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 전 공정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동부권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양산으로 전 주기에 걸친 반도체

채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ASML·AMAT 등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까지 유치할 뜻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활용 산업 활성화
민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을 제조·운영·정비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 재생에너지 산업 수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ESS 저장 전력, 기존 계통 전력을 결합한 분산형 전력을 통해 '산업용 전기 100원 시대'를 열어나간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kWh당 180원 정도이니 절반 가까이 저렴해 지는 셈이다.

또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거래까지 전담하는 플랫폼인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생산한 저렴한 재생 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단에 공급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신안 등 서남권 해상풍력과 태양광 단지, AI 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마을, 저수지 수상태양광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주민소득 증대를 병행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
양 후보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강조하

첨단산업 전초기지 도약...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목소리' 권역별 균형발전 강조...기능·역할 분담 특화 산업권 조성 "시민주권정부로 혁신"...金 "‘탕평’ 통한 행정 실현"

며,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민 후보는 동부권을 신산업·수출입 거점, 서부권을 에너지 전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남권은 농생명·치유 산업, 광주권은 AI 문화수도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수도개발청, 전남광주전력공사, K푸드산업공사 등 전라기관 배치와 함께 균형발전 회계, 권역별 부시장 도입을 추진한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를 광주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눠 각 권역에 특화된 산업을 집중 배치하는 'Y4-노믹스'를 제시했다.

광주권은 AI와 반도체 설계, 자율주행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부권은 로봇과 우주항공, 수소 산업 등 미래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조성한다. 서부권은 재생에너지와 데이터, 물류가 결합한 산업 거점으로 남부권은 농생명 관광 산업 중심지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권역별 전략을 통해 반도체·AI·에너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통합특별시 행정
민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시민주권 정부'를 내걸었다.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디지털 민주주의, 정책 과정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선 국면에서는 실행 행정과 시민주권, AI 기반 행정을 강조하며 행정혁신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를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산업 투자와 생활 기반, 기본사회, 주민 참여 결합된 '분업·순환형 메가시티'로 설계하고 있다.

김 후보는 행정 전문기라는 장점을 살려 통합을 전제로 한 '탕평'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균형 행정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지역과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와 정책을 통해 통합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와 전남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잡힌 투자를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주요 인프라의 분산 배치를 통해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 총력

청년 정책과 관련해 두 후보는 인구 유출 막기 위한 방안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의 원인을 일자리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태어난 것이 곧 금수저가 되는 '특(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주거·창업), 살기 좋은 전남광주(취업·일상), 함께하는 전남광주(신촌·청년자치)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년 유입을 위해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활용해 AI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의 소득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 회복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한 '만원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기본소득을 광주로까지 확대해 주거와 육아 지원책 안정에 방점을 찍는다는 구상이다.

또 전남형 24시 돌봄이러니집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청년문화복지카드 등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
양 후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비책을 노년층에 맞는 복지·돌봄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경로당을 마을 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노인 복지 정책 구상을 내놨다.

기존 여가 중심 경로당을 건강, 돌봄, 관계가 결합한 '마을 돌봄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여가 공간을 넘어 '생활 기반 돌봄 거점'으로 기능을 재설계, 건강관리와 식사, 운동, 치매 예방,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제공되는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는 방문진료, 이동 돌봄, 순회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돌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격차도 해소할 방침이다.

김영록 후보도 이날 공공요양원 확대 설립 등이 포함된 '고령사회 복지 완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훌쩍 넘어선 데다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현재 12곳에 불과한 공공요양원을 30곳까지 늘려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남광주형 치매안심 마을 시범 조성도 약속했다. 마을 전체를 거대한 '치매 안전지대'로 설계해 치매 어르신들이 마을 내 조성된 산책로와 커뮤니티 공간, 상점 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간병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대중, 통합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15일 광주YMCA·전남도교육청서 출마 기자회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 역량을 키워왔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전남·광주 통합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상무지구에 선거사무소를, 전남 순천에 후원회사사무소를 각각 마련했다.

오는 15일에는 오전 11시 광주YMCA, 오후 2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공약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곡성 출신인 김 교육감은 광주동신고와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목표정명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됐으며, 이후 목포시의회 3선 의원과 의장을 지냈다. 노무현재단 창립 당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도 이어왔다.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을 거쳐 약 30년 만에 교단으로 복직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됐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정치권 잇단 지지 선언...막판 지지층 결속 '온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김영록·민형배 예비후보가 세를 과시하며 막판 지지층 결속에 힘을 쏟고 있다. 김영록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 선언을 통한 '빅텐트' 구축을, 민형배 후보는 기본소득당 옹혜인 대표와 개혁 성향의 김용민 의원 등의 지지 선언을 알리며 선명성과 혁신 세력 결집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고층 출신 5선 의원에 인선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최고 중량급 인사로 손꼽힌다.

송 전 대표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성과로 입증된 추진력 등을 모두 갖춘 김영록 예비후보의 명예후원회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김 예비후보가 마지막 승리를 위한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김, 송영길 대표 합류...민, 옹혜인과 정책협약 '배신동맹'·'루머 유포 중단' 등 날선 성명전도

고 말했다.
김 후보는 송 전 대표의 합류에다 본 경선을 함께 뛴 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까지 함께 하기로 하면서 유례 없는 초대형 '빅텐트' 구성을 마치게 됐다.

여기에 후원회 공동회장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까지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 민주당 지지층 결속에 힘을 쏟고 있다.

민형배 후보는 기본소득당 옹혜인 대표의 지지 선언, 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의 서동용 전 국회의원의 캠프 응원 방문을 강조하며 부동층, 혁신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민 후보 캠프 사무실을 찾은 옹 대표는 공식 지지를 선언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의 핵심은 전남광주특별시 주도 산업혁신투자기금 설치, 재생에너지 전환 이익공유제 도입, 전남광주 전역 농어촌기본소득 선도 시행 등이다.

옹 대표는 "민형배 의원님과는 21대 국회에서부터 개혁의 동지로 뜻을 함께 해온 인연"이라며 "전남광주 토론회를 지켜보며 기본소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하고 있는 후보는 민형배 후보뿐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 김용민 의원과 서동용 전 의원의 민 후보 캠프를 방문하며 힘을 보탤 것이다.

김 의원은 "민형배 후보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응원했으며, 서 전 의원은 "통합된 거대 지지

체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로서 손색 없는 후보"라 강조했다.

양 후보는 세 결집에 집중하면서도 당성과 부동층 흡수를 위한 성명전도 이어갔다.

민 후보 측은 송 전 대표의 김 후보 캠프 합류에 대해 와 광주 구청장의 김 후보 캠프 합류에 대해 "낯은 정치 문법과 기독교 카르텔인 '배신동맹'"이라고 견제했다.

김 후보 측은 민 후보의 '배신동맹' 발언에 반발하는 동시에 "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이전은 유언비어"라며 민 후보 측에게 악의적인 루머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최종 후보를 뽑는 결선 투표는 이날부터 14일 진행된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통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50%)로 치러진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기본소득당 옹혜인 대표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 현역 단체장에 첫 승리

3선 도전 이상의 후보 꺾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경선에서 함평군의회 의장인 이남오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군수인 이상 후보를 꺾고 공천장을 따냈다.

민주당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처음으로 현역이 탈락한 사례다.
1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2인 경선으로 치러진 함평군수 경선에서 이남오 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남오 후보는 4년제 종합대학교 함평 캠퍼스 유치 등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전 세

대를 아우르는 학습플랫폼 구축도 강조한 다. 스마트농업 육성, 함평비축체의 사계절 관광 콘텐츠화, 청년 창업 지원센터 및 청년주택 공급,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선 기간에는 이상의 후보에게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상의 군수의 3선 도전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했고,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보들의 지지세 일부가 이남오 후보 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남오 후보는 본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윤희영 후보, 무소속 이형식 후보와 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